

【 2010년 9월 3일(금) 언론보도사항 】

시민일보



Today's Person

유 군 성 강북구의회 의장

서울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2일 오후 7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 문화원 주최로 열린 '한기위 국악한마당'에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다가올 한 기위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정신문

지역 일자리 나이제한 문제제기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했다.

또 구본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는 "2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시 삭감 심의된 예산을 61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에 증액 편성해줄 것"도 제안했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민주노동당)이 '일자리 예산 확대'를 제안·촉구하는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구본승 의원은 "9월부터 시작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강북구청은 서울 자치구중 유일하게 만 6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그로인해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해 상실감이 클 것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

白仁淑 기자 /
beakihnsuk@sjung.co.kr

시정신문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6일까지 열리는 144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유군성 의장은 이번 회기에 있을 민생특위 위원 구성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개 회사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효율과 불합리성의 문제는 없는지 의원들의 관심과 열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구본승, 김도연, 김동식, 이백균, 이종순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결특위와 김도연, 김동식, 박문수, 이백균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본회의 후 열린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박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박문수 위원장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집행부의 불편부당한 민원처리가 있는지 살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본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했다. 구본승 위원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

내년 의정비 한푼도 안올린다

종로구의회, 2년 연속 동결 '만장일치' 결의

운영위원 수당등 예산 2000만원 절감 효과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오금남)는 최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이같은 결정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른분담은 물론, 정치1번지라

는 별침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자 한 것.

이로써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내년에도 한 푼의 인상도 없이 2년 전 수준의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 받게 됐으며, 의정비 동결을 의원들이 자진해서 결정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과 여론조사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2000여 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총회를 마친 의원들은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부양에 기여하기 위해 의정비 동결을 결의한 의원들의 열정과 각오가 밀거름이 되어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ann@smminbo.co.kr